

# 최소논항 교체의 의미론: 자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남 승 호  
(서울대학교)

Nam, Seungho. (2002). Semantics of locative alternations in Korean: Focused on intransitive and abjectival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38(1), 295-318.

This paper proposes a semantic typology of intransitive verbs and adjectives in Korean which involve locative alternation: (i) sound emission predicates, (ii) light emission predicates, and (iii) predicates of full occupancy. The paper further notes that the typology is closely related to and supported by their argument structures and their frequency in alternating constructions: i.e., [LOCATION-nominative] vs. [LOCATION-locative]. The paper claims that (i) only [LOCATION-nom] construction implies holistic effect; (ii) the other argument NP in [LOCATION-nom] construction is interpreted as 'Cause' (but not as 'Instrument') of the event of the sentence; (iii) another locative alternation between [LOCATION-ey] and [LOCATION-eyse] is allowed only in case the predicate lexically denotes an atelic aspectuality; (iv) if a [+human] nominal occurs as [LOCATION-nom], the NP is interpreted as a thematized location and the VP is an individual level predication of the thematized NP; and (v) another similar but different locative alternation with a source NP can also be analysed in terms of causative event structure. The paper formally characterizes the lexical meaning of locative alternation predicates in terms of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case structure, and qualia structure (Pustejovsky, 1995). The same analysis can be extended to transitive locative alternations.

**Key words:** argument alternation, locative alternation, sound emission predicate, light emission predicate, argumenthood, affectedness, transitivity, unaccusative verb, causative analysis,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

\* 이 논문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최 어학연구회(2001년 12월 7일)에서 발표되었으며, 발표시 참석자 여러분의 조언이 논문의 내용 수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또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어학연구 심사위원 세 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에서 지원되는 2001년도 한국학연구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처소논항 교체

한국어의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는 다음 (A)와 (B) 구문에 함께 쓰인다.

- (1) A. 극장에 관객들이 가득찼다.  
 B. 극장이 관객들로 가득찼다.
- (2) A. 새벽길에 안개가 자욱하다.  
 B. 새벽길이 안개로 자욱하다.

위와 같은 교체현상은 소위 “처소논항 교체”(locative alternation)라 불리는 광범위한 현상에 포괄되는 것으로서, 처소논항 교체란 술어가 취하는 처소논항이 둘 이상의 구문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1)의 ‘가득차다’와 같은 자동사와 (2)의 ‘자욱하다’와 같은 형용사와 함께 발견될 뿐만 아니라, 처소논항을 취하는 ‘칠하다, 채우다’나 ‘비우다’와 같은 많은 타동사들도 처소논항이 격표지를 달리하며 교체한다. 이 논문에서는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 술어들 가운데, 위의 (A) 문장에서와 같이 처소논항이 처소격 조사 ‘에’를 취하는 구문과 주격조사 ‘이/가’를 취하는 구문 교체 현상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기술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타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처소교체 구문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처소교체의 타동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론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남승호, 2000). 이 논문에서는 다음에 보이듯이 편의상 (A) 유형의 구문을 “처소-에” 구문이라 부르고, (B) 유형의 구문을 “처소-가” 구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 (3) (A) 처소NP-에 원인NP-가 동사/형용사    “[처소-에] 구문”  
 (B) 처소NP-가 원인NP-로 동사/형용사    “[처소-가] 구문”

한국어의 이러한 논항 교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통사론적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처소 교체를 허용하는 자동사와 형용사를 의미론적으로 분류하고, [처소-에] 구문과 [처소-가] 구문의 의미특성을 기술하며, 처소논항 교체 술어의 어휘 의미를 사건의미론적으로 형식화하여 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어에서 위와 같은 교체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로는 Boons, Guillet, 및 Leclere (1976)이 대표적이며, 영어에서는 *swarm*, *abound (with)*와 같은 술어들이 보이는 교체현상을 Salkoff(1983)와 Levin(1993) 등이 통사론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홍재성(1987b)을 비롯하여 양정석(1995), 유현경(1998), 한송화(2000) 등이 이들의 통사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 2. 최소논항 교체 술어의 분류

### 2.1. 의미 유형 분류

이 논문은 최소논항 교체를 이루는 자동사와 형용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미유형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는 직관적인 의미 해석에 따른 것이지만, 2.2.에서는 이 의미 분류가 해당 술어의 논항 구조와 교체구문 간 선호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논항 교체 술어들은 그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sup>1)</sup>

#### (4) 한국어 최소논항 교체 술어의 유형

##### I. 소리내기 술어 (sound emission predicates):

동사: 지글거리다, 버글거리다, 부글거리다, 웅웅거리다, 술렁거리다, 진동하다, 울리다 등

형용사: 소란하다, 시끄럽다, 쟁쟁하다 등

##### II. 빛내기 술어 (light emission predicates):

동사: 반짝이다, 번득이다, 빛나다, 어른거리다, 불타다, 타오르다 등

형용사: 뽀얗다, 뿌옇다, 까맣다, 빨갳다 등

##### III. 전체적 점유 술어 (predicates of full occupancy):

동사: 가득차다, 들끓다, 메어지다, 부풀다, 넘치다, 넘쳐흐르다, 복적거리다, 범비다 등

형용사: 자욱하다, 즐비하다, 울창하다, 가득하다, 그득하다, 푸짐하다, 무성하다,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등

(I-III)의 유형 각각에는 동사들과 형용사들이 포함되는데, 개별 술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의미직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의 소리내기 술어 유형에는 주로 의성어 어근으로 형성된 자동사들이 포함되고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술어를 포함한다. (II)의 빛내기 술어 유형에는 빛을 내는 사건을 지시하는 자동사들과 함께 색깔을 지시하는 형용사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III)의 전체적 점유 유형에 속하는 술어들은 주로 해당 술어가 취하는 최소논항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원인논항에 의해 전체적으로 점유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는 (I-II) 유형과 달리 많은 형용사들이 포함된다. 아래에 각 유형의 전형적인 교체 구문의 예들이 나와 있다.

1) Dowty (2000)은 영어에서 최소논항을 주어로 취하는 술어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i) 물리적 이동 동사 (*crawl, drip, dribble, foam, hop, shiver, vibrate* 등), (ii) 소리내기 동사 (*hum, buzz, twitter, chirp, rustle, resound, echo* 등), (iii) 단순한 종류의 시지각 동사 (*beam, blaze, brighten, flicker, glimmer, light up, twinkle* 등), (iv) 냄새내기 동사 (*reek, smell, be fragrant* 등), (v) 점유/풍부함의 정도 형용사 (*abound, teem, be rich/rife/rampant (with)* 등).

- (5) a. 강당에 합성소리가 크게 울린다.  
b. 강당이 합성소리로 크게 울린다.
- (6) a. 받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인다.  
b. 받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반짝인다.
- (7) a. 화장실에 파리떼가 들끓는다.  
b. 화장실이 파리떼로 들끓는다.

또한 (4)에 예시된 형용사들은 다음과 같은 처소논항 교체를 보이는데, 일부 형용사는 원인논항을 이루는 명사의 의미부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 (8) a. 교실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  
↔ 교실이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시끄럽다.  
b. 산에 소나무가 가득하다.  
↔ 산이 소나무로 가득하다.  
c. 백사장에 발자국들이 어지럽다.  
↔ 백사장이 발자국들로 어지럽다.

형용사 가운데는 ‘가득하다, 울창하다’와 같이 어떤 장소가 모두 차버린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가 하면, 이와 의미가 유사한 “파다하다, 풍부하다, 술하다” 등이나, 의미상 반대를 뜻하는 “한산하다, 희박하다, 드물다”는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2.2. 처소교체 술어의 논항구조와 논항성의 정도

이제 처소논항 교체 술어의 논항구조를 살펴 보자.

- (9) a. (받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인다/빛난다.  
b. 받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반짝인다/빛난다.
- (10) a. (아침거리에) 안개가 뽀얗다/뿌옇다.  
b. 아침거리가 (안개로) 뽀얗다/뿌옇다.
- (11) a. 집안에 잔치 손님들이 북적거린다/가득하다.  
b. 집안이 잔치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가득하다.
- (12) a. 화장실에 파리떼가 들끓는다.  
b. 화장실이 파리떼로 들끓는다.

먼저 (9)의 (a,b)에서 주어로 표현되지 않은 성분은 필수논항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즉 (9a)의 ‘밤거리’와 (9b)의 ‘네온사인’으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문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문장이 가리키는 정보내용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9a)에서 괄호 안의 성분을 제외한 ‘네온사인이 반짝인다/빛난다’와 (9b)에서 ‘아침거리가 뽀얗다/뿌옇다’는 모두 완성된 정보 단위를 이룬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완성된 정보 단위”라는 개념은 남승호(2000)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필수논항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13) 정의: 하나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단위(complete information unit)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그 발화가 하나의 사실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든 정보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4) 정의: 한 문장에 포함된 논항들 가운데 술어의 필수논항(true argument)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술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완성된 정보단위의 필수적인 성분이어야 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한 문장에 포함된 논항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필수적인 성분인가를 가려내는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위의 (9a,b)에서 괄호 안에 있는 논항들이 과연 필수적인가 수의적인가를 가려내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험방법으로 남승호(2000)는 다음과 같은 시험담화 형식을 제안한다.

(15) A: 네온사인이 반짝여요.  
 B: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네온사인이 반짝여요?  
 A: 밤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여요.

(16) A: 밤거리가 반짝여요.  
 B: 그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밤거리가 반짝여요?  
 A: 네온사인으로 밤거리가 반짝여요.

위 담화 형식 (15)를 보면 (A)의 발화를 (B)가 들었을 때, “그래요?”라는 응답으로 하나의 완성된 정보단위로 받아 들인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질문은 부가적으로 “어디에”라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A)의 발화에서 ‘반짝이다’라는 술어는 최소논항을 필수적인 성분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논항은 (A)의 발화가 완성된 정보단위를 이루기 위한 필수성분이 아니므로 필수논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6)에서는 [최소-가] 구문에서 원인논항이 수의적임을 보여 주며, 이러한 판단은 (10)에서 ‘뽀얗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괄호 안에 있는 [처소-에] 구문의 처소논항과 [처소-가] 구문의 원인논항이 모두 수의적인 논항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이제 (11)의 문장에서 ‘집안에’와 ‘손님들로’가 필수논항인지를 살펴 보자. 다음 (17-18)의 답화는 이들이 필수논항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준다.

(17) A: 잔치 손님들이 복적거려요/가득해요.

B: 그래?

#그런데 어디에 손님들이 그렇게 복적거려~/가득해?

(18) A: 집안이 복적거려요/가득해요.

B: 그래?

?그런데 누구/뭐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복적거려~/가득해?

즉 위의 답화에서 [처소-에] 구문의 처소논항과 [처소-가] 구문의 [원인NP-로] 논항이 해당 문장이 완성된 정보단위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판단되어, ‘복적거리다’와 ‘가득하다’의 필수논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12)의 ‘들끓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처소논항과 원인논항이 모두 필수논항으로 분석된다.<sup>2)</sup>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는 처소교체 술어의 논항구조를 다음과 같이 필수논항의 수에 따라 ‘1항 술어 유형’과 ‘2항 술어 유형’으로 크게 나눈다.

(19) 1항 술어 처소교체 유형:

(처소-에) 원인-이 V/A ⇔ 처소-가 (원인-으로) V/A

<반짝이다, 빛나다, 뽀얗다, 뿌옇다, 지글거리다, 웅웅거리다, 소란하다 등>

(20) 2항 술어 처소교체 유형:

처소-에 원인-이 V/A ⇔ 처소-가 원인-으로 V/A

<복적거리다, 가득하다, 들끓다, 넘쳐흐르다, 울창하다, 어지럽다 등>

(19-20)의 분류를 2.1의 (4)에 제시된 의미 유형 분류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소리내기 술어’와 ‘빛내기 술어’는 1항 술어 유형에 속하며, ‘전체적 점유 술어’는 2항 술어 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미 유형의 분류가 논항구조의 유형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sup>3)</sup>

2) 위의 시험답화 (18)에서 ‘그래?’에 후속하는 질문이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화자도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복적거리다’의 [처소-가] 구문에서 원인논항이 수의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사론적인 문법성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필수 논항성을 판별하는 시험답화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경우에 따라 불분명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복적거리다/가득하다’와 ‘들끓다’의 [처소-가] 구문에서 원인논항이 필수적인 논항이라고 분석한다.

3) 이 논문에서 ‘1항술어 처소교체’ 유형으로 분류한 자동사/형용사들을 유현경(1998)은 “유사 장소교차

이러한 상관성은 한국어 대용량 코퍼스에서 추출한 용례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에서 제시된 의미 유형 가운데, ‘소리내기’ 유형과 ‘빛내기’ 유형의 자동사와 형용사는 코퍼스에서 [처소+가] 구문보다 상대적으로 [처소+에] 구문으로 더 많이 실현되고, ‘전체적 점유’ 유형의 자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처소+가] 구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한다. 다시 말하면, 앞서 (11-12)의 ‘복직거리다/가득하다’와 ‘들끓다’와 같은 ‘전체적 점유’ 유형의 술어는 처소논항을 주어로 표현하는 [처소+가] 구문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며, 처소논항과 함께 원인논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항 술어로 분석된다. 그리고 (9-10)에서 보았던 ‘반짝이다/빛나다’나 ‘뽀얗다/뿌옇다’와 같은 ‘빛/소리 내기’ 유형의 술어는 [처소+에] 구문을 선호하며, [처소+에] 구문이나 [처소+가] 구문에서 모두 1항 술어로 분석된다.

### 3. 처소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론적 특성

#### 3.1. 부분적 관여와 전체적 관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처소논항 교체 구문에서 [처소+에] 구문은 술어의 의미속성이 처소논항이 가리키는 장소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소위 “부분적 효과” (partitive effect)를 나타내며, [처소+가] 구문은 술어의 의미속성이 장소의 전체에 적용되는 소위 “전체적 효과” (holistic effect)를 나타낸다.

- (21) a.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b. 밤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 (홍재성, 1987b)

위의 (a)는 밤하늘 전체가 반짝인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밤하늘의 일부에서 별들이 반짝인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b)는 밤하늘 전체에서 별들이 반짝인다는 전체적 효과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해석상의 차이는 이 교체를 허용하는 동사-형용사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sup> 즉 처소논항이 주어로 표현될 때 그 논항이 가리키는 장소 전체가 의미해석에 관여하게 되지만, 처소논항이 주어로 표현되지 않을 때는 처소논항이 단지 상황적 장소를 지시하여 그 장소에서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처소+에] 구문과

자동사/형용사”라는 유형을 설정하여 ‘뽀얗다, 소란하다, 어지럽다’ 등을 소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현경(1998, pp. 154-159)에서 논의된 논항의 필수성/수의성을 판별하는 통사적인 기준이 불분명하며, 또한 (20)에서 2항술어 처소교체로 분류된 술어가 [처소+에] 구문을 취할 때 ‘처소+에’ 논항이 수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통사적인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처소교체를 허용하는 술어의 논항성 판별이 그들의 의미 유형과 상관적임을 보여줌으로써 논항성 판별의 좀더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4) 물론 전체 점유의 술어는 어휘의 본래적 의미로 말미암아 [처소+에] 구문과 [처소+가] 구문의 ‘부분적/전체적 효과’의 차이가 다른 유형의 술어보다 불분명하다.

달리, [처소-가] 구문에서는 처소논항의 의미역(semantic role)이 장소(location)라기 보다는 대상(theme)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다음의 타동사 처소교체 현상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부분적/전체적 효과’의 의미 차이는 영어나 한국어의 타동사 처소논항 교체에서 지적되어 온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쉽게 확인된다.

- (22) a. Mary sprayed paint on the wall.  
 b. Mary sprayed the wall with paint.
- (23) a. Mary loaded hay onto the truck.  
 b. Mary loaded the truck with hay.
- (24) a. 진이는 도화지에 노랑물감을 칠했다.  
 b. 진이는 도화지를 노랑물감으로 칠했다.
- (25) a. 진이는 책상에 신문을 덮었다.  
 b. 진이는 책상을 신문지로 덮었다.

영어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22a, 23a) 문장이 부분적 효과를 (22b, 23b) 문장이 전체적 효과를 나타내며, 한국어 (24a, 25a) 문장의 [처소-에] 구문은 부분적 효과를 그리고 (24b, 25b) 문장의 [처소-를] 구문은 전체적 효과를 나타낸다. 즉 (24a)와 달리 (24b)에서는 도화지 전체가 노랑물감으로 칠해졌음을 뜻하며, 책상 전체가 신문지로 덮였음을 뜻한다. 타동사 구문에서 [처소-를] 구문은 처소논항을 대상화(thematization) 시키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장소가 전체적으로 영향입음(fully affected)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상화라는 현상이 타동성(transitivity)과 영향입음(affectedness)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연재훈, 1993).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보았던 자동사나 형용사의 처소논항 교체에서도 [처소-가] 구문에서의 처소논항은 대상화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전체적 효과의 차이는 또한 [원인NP] 논항의 의미특성에서도 발견된다. 즉, 홍재성 (1987b)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일부 자동사/형용사의 [처소-에] 구문에서 [원인NP-가] 논항이 단수/특정 명사구를 허용하는데 반해 [처소-가] 구문에서는 [원인NP-로] 논항은 반드시 불특정 복수/집합/물질 명사구만이 허용된다.

- (26) a. 밤하늘에 북극성이 반짝인다.  
 b. 밤하늘이 별들로/\*북극성으로 반짝인다.  
 c. 오늘도 밤하늘이 (많은/E) 별들로 반짝인다/빛난다.  
 (홍재성, 1987b, [26])  
 d. \*오늘도 밤하늘이 (그 별/별 하나)-로 반짝인다.

그러나 [원인NP-로] 논항에 대한 이러한 의미 제약이 모든 최소논항 교체 술어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대조는 다음의 예문에서 발견된다.

- (27) a. The wall crawled with roaches/\*a roach.
- b. A roach crawled on the wall.

하지만 이러한 [원인NP-로] 논항에 대한 제약은 통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다음 예문 (28a)는 Dowty(2000)에서, (28b-c)는 미국 LDC-코퍼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with*-전치사구의 명사구에 단수나 한정명사구가 나타나는 예들이다.

- (28) a. The whole school bussed with the rumour about the principal and the librarian.
- b. The receiver buzzed with the irate caller's reply, and Wion hung up silently.
- c. Washington buzzed with the names of possible successors.

영어의 최소논항 교체 술어인 *buss*나 *buzz*는 *with*-전치사구의 명사구로서 기본적으로는 비한정 복수명사를 취하나, 위의 예들은 단수나 한정명사구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단수 명사구가 쓰인 (a, b)의 경우 문장의 의미는 그 소문이 돌았던 사건을 일회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 소문이 여러 사람의 입에 유포되었던 복수의 사건으로 해석되어 모든 학교가 떠들썩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원인NP-로]에 대한 의미적 제약은 실상 한국어의 장소교체 술어 가운데 일부에 적용되며, 청각적 소리내기 동사/형용사와 점유 정도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형용사의 [최소-가] 구문에서 [원인NP-로] 논항이 대개의 경우는 물질명사나 비가산명사로 나타난다.

- (29) a. 남비가 찌개로 지글거린다.
- b. 해변이 파도로 출렁거린다.
- c. 건물 전체가 포성으로 크게 울린다/진동한다.
- d. 강둑이 간밤에 내린 호우로 흘러 넘쳤다.
- e. 아침 거리가 안개로 자욱하다.
- f. 방안이 국화향기로 가득하다.
- g. 온 집안이 마구 쌓아놓은 이삿짐으로 어지럽다.

### 3.2. [최소-가] 구문에서 [원인NP-로] 논항의 의미해석

홍재성(1987b)은 최소논항이 주어로 실현되는 [최소-가] 구문에서 또 '다른 명사구 [NP-로]가 원인(cause)의 논항에 가깝다고 하였다.'<sup>5)</sup>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 (a)에서 [NP-로] 논항 뒤에 '인해/해서/말미암아'와 같은 표현이 뒤따를 수 있다

는 사실과, (b) 문장에서는 ‘NP-으로’가 ‘NP-에’로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 (30) a. 오늘도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인해/해서/말미암아) 아름답게 반짝인다/빛난다. (홍재성, 1987b, [287])  
 b.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에 가득찼다. (홍재성, 1987b, [337])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든 처소논항 교체 술어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NP-로] 논항이 ‘도구(instrument)의 의미역이라기 보다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관형절 형성에서 엿보인다.

- (31) a.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인다.  
 a'.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b. 밤하늘이 수많은 별들로 반짝인다.  
 b'. \*밤하늘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 (32) a. 그의 가슴에 희망이 가득찼다.  
 a'. 그의 가슴에 가득찬 희망  
 b. 그의 가슴이 희망으로 가득찼다.  
 b'. \*그의 가슴이 가득찬 희망

위에서 (31a', 32a')은 [처소-에] 구문에서 [NP-가] 논항이 관계절의 머리명사로 관계화되는 구문으로서 문법적이지만, (31b', 32b')은 [처소-가] 구문에서 [NP-로] 논항이 관계절의 머리명사로 관계화되는 구문으로서 비문법적이다. 이와 같이 [NP-로] 논항이 관계화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논항이 ‘도구’라기 보다는 ‘원인’에 가깝다는 증거이다. 다음의 예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 (33) a. 망원경으로 유성을 관측했다. [도구]  
 a'. 유성을 관측한 망원경  
 b. 베토벤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했다. [도구]  
 b'.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한 피아노  
 c. 이번 태풍으로/에 나무가 쓰러졌다. [원인]  
 c'. \*나무가 쓰러진 태풍  
 d. 이번 화재-로/에 많은 산림이 불탔다. [원인]  
 d'. \*많은 산림이 불탄 화재

5) ‘칠하다’나 ‘채우다’의 타동사 처소교체 구문에서 처소논항이 아닌 다른 논항은 ‘NP-로’로 실현되거나 ‘NP-를’로 실현되거나 모두 ‘도구’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김영희, 1973), ‘NP-로’는 ‘도구’로 ‘NP-를’은 ‘대상’으로 해석하여 의미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입장도 있다(양정석, 1995).

즉 한국어에서 [NP-로] 논항이 ‘도구’일 경우에는 관계화가 자연스럽지만(33a/a', 33b/b'), ‘원인’일 경우에는 관계화가 불가능하다(33c/c', 33d/d'). 물론 [최소-가] 구문에서 [NP-로] 논항이 필수논항인지 아니면 부가어인지 판별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2.2에서 ‘들끓다’와 ‘반짝이다’의 차이와 함께 논의한 바 있다.

### 3.3. [최소-에]와 [최소-에서] 교체의 상적 의미 차이

최소교체를 허용하는 자동사 가운데 일부는 [최소-에] 구문의 장소 논항인 [최소-에]가 [최소-에서]로 교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형용사는 이러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34) a. 밤하늘-에/에서 여전히 별들이 반짝인다.
- b. 극장-에/\*에서 관객들이 가득찼다.
- c. 새벽길-에/\*에서 안개가 자욱하다.

(34a)의 ‘반짝이다’는 ‘-에/에서’ 교체를 허용하나, (34b)의 자동사 ‘가득차다’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34c)의 ‘자욱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전혀 이러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홍재성 (1987b, pp. 188-189)은 이러한 교체가 항상 자유롭지는 않으며, 이 조사 교체가 뚜렷한 의미차이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체가 형용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자동사 중에서도 일부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조사의 교체가 아니며 의미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과 [최소-에/에서]의 교체는 의미상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최소-에/에서]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자동사는 위의 ‘가득차다’ 뿐만이 아니라, ‘매어지다, 부풀다’ 등이 있는데, 이들 동사는 [최소-에/에서]의 교체를 허용하는 자동사와 상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 (35) a. 식당 안에/에서 폭음이 진동했다. (홍재성, 1987b, [44])
- a'. 식당 안에/에서 폭음이 진동하고 있다.
- a". \*식당 안에/에서 폭음이 진동해 있다.
- b. 남비-에/에서 끓는 기름이 지글거린다.
- b'. 남비-에/에서 끓는 기름이 지글거리고 있다.
- b". \*남비-에/에서 끓는 기름이 지글거리어 있다.
- c. 계곡-에/에서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 c'. 계곡-에/에서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 c". \*계곡-에/에서 영희를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쳐 있다.
- d. 하늘-에/에서 여전히 별들이 반짝인다.
- d'. 하늘-에/에서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다.
- d". \*하늘-에/에서 여전히 별들이 반짝여 있다.

위의 (35) (a,b,c,d)는 [처소-에/에서]의 교체가 가능한 자동사를 보여준다. 이들은 (35) (a',b',c',d')에서와 같이 (과정)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하지만 (35) (a",b",c",d")에서 보듯이 이들 자동사가 결과상태(result state) 지속의 ‘-어 있다’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어의 ‘-어 있다’가 일반적으로 자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동사가 상태/장소/형태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들과만 결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변화를 내포하는 자동사들이 ‘-어 있다’와 결합하면 변화의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sup>6)</sup> 즉 한국어의 ‘-어 있다’는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35) (a",b",c",d")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해당 자동사들이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sup>7)</sup>

이러한 유형의 자동사들은 흔히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s)라고 불리는 술어의 의미 특성을 공유하는데, 비대격 동사는 변화를 내포하는 사동(causation)의 의미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비대격 동사의 사동분석(causative analysis)은 Chierchia(1989), Levin과 Hovav(1995), Pustejovsky(1995) 등에서 달성동사 일반에 대한 의미분석으로 제안되었으며, 이것은 Krifka(1992)가 소위 누적 대상 동사(incremental theme verbs)의 의미해석을 위해 동형 사상 함수(homomorphism mapping from objects to events)를 제안한 것, 그리고 Tenny(1994)가 인과적 의미를 상태변화 동사와 착점지향 동사(verbs of motion to a goal)의 해석에 확대적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대격 동사의 [처소-에/에서] 교체는 자동사의 상적 의미에 따라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처소-에] 구조와 [처소-에서] 구조는 상적으로 달리 해석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대조는 [처소-에] 구조가 종결성(telicity)을 갖는 사건으로 해석되는 데 반해, [처소-에서] 구조는 비종결적(atelic)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 (36) a. 해가 진 후 {한 시간만에, 한 시간도 안 돼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b. \*?해가 진 후 {한 시간만에, 한 시간도 안 돼서} 밤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즉 (a)는 [처소-에] 구조로서 ‘한 시간만에’라는 시간틀 부사어(frame adverbial)의 수식이 자연스러운데, (b)는 [처소-에서] 구조로서 시간틀 부사어의 수식이 부

6) ‘-어 있다’와 결합하는 자동사들 가운데는 ‘죽다, 늙다, 도착하다, 넘어지다’ 등이 있는데 이들이 ‘-어 있다’와 결합하면 예비과정(preparatory process)을 거친 후 결과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죽어 있다’는 ‘죽는 과정(process)’이 끝나고 결과로 ‘죽은 상태(state)’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7) 양정석(1995:96)은 처소 교체 구문을 이루는 자동사와 피동사는 능격성(비대격성)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비행동주성(non-agentivity)을 갖는 것을 다음과 같은 구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하고 있다: (i) 명령문, (ii) “-려고 (노력)하다” 구문, (iii) “-라고 당부/부탁/명령-하다” 구문이 허용되지 않음.

자연스럽다. 이것은 [처소-에서] 구조와 달리 [처소-에] 구조는 종결적 사건을 지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4. [처소-가] 구문의 인물명사 주어와 그 의미 해석

처소교체 구문에서 처소논항으로 다음에서와 같이 인물명사가 나타날 수 있다.

- (37) a. 철수에게는 이가 득실거린다/들끓는다. (홍재성, 1987b, [40])
- b. 철수에게는 늘 친구들이 들끓는다.

위의 예문은 모두 [처소-에] 구조를 갖고 있으나, [처소-가] 구조에서는 처소논항으로 인물명사가 잘 허용되지 않는다.

- (38) a. \*철수는 이로 들끓는다/득실거린다. (홍재성, 1987b, [40'])
- b. ?\*철수는 늘 친구들로 들끓는다.

그 이유를 홍재성(1987b)은 인물명사가 일반적으로 주어위치에서 장소명사의 해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 다음의 예문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 (39) a. 철수는 늘 희망으로 넘쳐 있다. (홍재성, 1987b, [각주-18])
- b. 영희는 늘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처소논항이 주어로 나오는 [처소-가] 구문의 의미특성을 잘 살펴보면 쉽게 설명된다. 먼저 처소교체 구문에서 처소논항이 [처소-에] 구조로 실현될 때, ‘-에’는 소위 ‘처소격 조사’로 불리는 것이어서 처소논항이 본래적인 처소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즉 [처소-에] 구문은 처소논항이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장소를 ‘-에’라는 처소격 조사를 취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소-가] 구문은 앞서 밝혔듯이 처소논항이 대상화를 통해 주어로 상승되며, 전체 문장은 해당 처소논항에 대한 서술을 이룬다. 따라서 [처소-가] 구문은 처소논항이 사건이나 사태의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해당문장의 술어가 처소논항의 개체적(individual)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처소-가] 구문에서 처소논항으로 인물명사가 나타날 때는 당연히 해당 인물의 개체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술어가 단순한 현재시제로 표현될 때는 해당 인물의 현재적 속성을 나타내지 않고 개체적인 일반적 특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흔히 개체 차원의 서술 (individual-level predication)이라 하여 단계 차원의 서술 (stage-level predication)과 구분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앞서의 (38a,b)가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다. 즉 (37a)는 처소논항이 처소격 조사 ‘-에’를 취하고 나타나는 구문이므로 처소논항은 단지 사

건이나 사태의 처소적 해석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38a)는 처소논항이 주격 조사를 취하고 나타나면서 나머지 술부는 처소논항의 인물에 대한 개체차원의 서술을 제공하므로, ‘이가 들끓는 상태’와 같은 단계적 차원의 서술이 부적절하게 들리는 것이다. 또한 (38b)는 (38a)보다 조금은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38b)의 ‘친구가 들끓는 상태’는 (38a)의 ‘이가 들끓는 상태’보다 칠수라는 인물의 개체적 속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소논항이 인물명사 대신 신체명사나 해당인물과 관련된 장소명사로 나타나거나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나타날 때는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 (40) a. 칠수의 몸에는 이가 들끓었다/들끓는다.  
b. 칠수의 집은 늘 친구들로 들끓었다/들끓는다.

### 3.5. 또다른 처소논항 교체 술어들: ‘새다’와 ‘밝다’ 부류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처소논항 교체 술어의 두 가지 유형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예들을 보자.

- (41) a.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샌다.  
b. 연료탱크가 (\*기름으로) 샌다.

위의 교체현상은 처소논항이 기점(source)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보여 준다. 즉 (41a)의 ‘연료탱크에서’는 기름의 장소변화에서 기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논항이 (41b)에서는 주어로 상승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기점의 논항이 주어로 상승된 (41b)에서는 이동의 대상논항이 나타날 수 없어서, 앞서 살펴본 [처소-가] 구문에서와 같이 ‘기름으로’가 표면에 실현될 수 없다. (41b)에서 괄호 안에 별표를 넣은 것은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나타나면 비문법적임을 표시한다. 따라서 ‘새다’는 처소논항 교체 술어로 분석되지만, (41a)와 같은 [처소-에서] 구문에서는 ‘새다’가 2항 술어로, (41b)와 같은 [처소-가] 구문에서는 1항 술어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41a)와 (41b)의 의미관계를 들여다 보면, (41b)의 ‘새다’는 연료탱크의 개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개체적 특성이 (41a)가 가리키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41a,b) 두 구문을 통합하여 볼 때, 두 구문은 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관계에 있는 일련의 형용사들이 있는데, 다음의 예에 나타나 는 ‘밝다, 환하다’와 같은 것들이다.

- (42) a. (밤거리에) 가로등이 밝다/환하다.  
b. 밤거리가 (가로등 불빛으로) 밝다/환하다.

이들 형용사는 (42a)와 같이 [처소-에] 구문을, 그리고 (42b)와 같이 [처소-가] 구문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두 구문에서 이들 형용사는 모두 1항 술어로 분석된다.

즉 (42)에서 괄호 안에 있는 성분은 모두 수의적인 논항으로 판별된다. 이에 속하는 형용사로는 ‘밝다, 환하다’ 외에도 ‘어둡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등이 있다.

- (43) a. 교실에 형광등 불빛이 어둡다.
- b. 교실이 (\*형광등 불빛으로) 어둡다.

- (44) a. 교실에 아이들이 조용하다.
- b. 교실이 (\*아이들로) 조용하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밝다/환하다’나 ‘시끄럽다’와 달리 ‘어둡다’와 ‘조용하다’는 [최소-가] 구문에서 [원인-으로] 논항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41b)에서 본 ‘새다’의 [최소-가] 구문과 같은 특성이다.

#### 4. 최소논항 교체 술어의 사건의미론적 의미 분석

이제까지 최소논항 교체 술어의 의미분류와 논항구조, 그리고 [최소-에] 구문과 [최소-가] 구문의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이들 술어의 어휘 의미를 이제까지 살펴 본 의미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한다. 먼저 논항 교체 술어의 어휘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고 표상하는 형식 이론을 적용한다. Lee, Nam 및 Kang (1998)과 이정민 (2000), 남승호(2000), 김윤신(2001) 등은 한국어 논항교체 술어의 어휘적 의미를 Pustejovsky(1991, 1995)의 생성 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을 수정, 확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남승호(2000)는 최소논항 교체 술어 가운데 ‘칠하다, 채우다, 움직이다, 입다’와 같은 타동사의 다의성(polysemy)을 생성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최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 자동사와 형용사들의 의미를 생성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4.1. ‘반짝이다’ 부류

여기에서는 편의상 ‘반짝이다, 울리다’와 ‘들끓다, 가득차다’의 어휘의미를 그 상적 의미의 측면에서 좀더 분석하고 이와 함께 그들의 의미구조를 사건구조(event structure)와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를 중심으로 표상한다.

- (45) a. 받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인다.
- b. 받거리가 네온사인으로 반짝인다.
- c. 아무도 없는 받거리-에/에서 네온사인만 홀로 반짝이고 있다.
- d. 받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다.
- e. \*받거리에 네온사인이 반짝여 있다.

‘반짝이다’가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며, (45a)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사건’이 (45b)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과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직관에 기초하여, ‘반짝이다’가 가리키는 사건을 인과적(causation) 의미에 기초한 복합사건으로 기술한다. 여기에서 복합사건이란 Pustejovsky(1995) 식의 사건구조 형식에서 둘 이상의 하위사건(subevents)으로 분석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반짝이는 사건’은 먼저 (i) ‘원인 논항이 반짝이는 과정’을 하나의 하위사건 (event-1: Process)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ii) ‘장소 논항이 event-1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반짝이게 되는 과정’ (event-2: Process)를 갖는다. 그런데 이 두 하위사건은 대개 시간적으로 중첩되는 사건이어서, (45d)에서와 같이 ‘고 있다’가 결합하면 두 개의 하위사건이 함께 지속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즉 event-1과 event-2가 가리키는 과정이 함께 지속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반짝이는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45a)와 (45b)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5a)의 [처소-에] 구문은 두 하위사건 가운데 원인이 되는 과정인 event-1(Process)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며, (45b)의 [처소-가] 구문은 두 하위사건 가운데 결과로 야기되는 event-2(Process)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표현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처소-에] 구문은 원인의 하위사건인 event-1을 부각시킴으로써 원인 논항인 ‘네온사인’을 주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처소-가] 구문은 결과의 하위사건인 event-2를 부각시킴으로써 event-1의 결과로 영향을 입는 처소 논항 ‘밤거리’를 주어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반짝이다’가 지시하는 사건의 내부구조를 생성 어휘부 이론이 제안하는 어휘 의미 구조에 기초하여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46) 반짝이다:

사건구조 =	사건 =	event-1:과정 event-2:과정 시간관계:중첩관계 중점:event-1/event-2
논항구조 =	논항1 =	x:원인[사물, 빛을내는물체]
	논항2 =	y:처소[장소, 공간]
격구조 =	격틀1 =	x-가_(y-에)
	격틀2 =	(x-로)_y-가
특질구조 =	형상역 =	반짝이는_과정(event-2,y)
	작인역 =	반짝이는_과정(event-1,x)

위의 어휘의미 구조는 크게 사건구조, 논항구조, 격구조(case structure), 특질구

8) 성 어휘부 이론에 따른 어휘의미 구조와 표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정민(2000), 남승호(2000)과 김윤신(2001)을 참고할 것.

조(qualia structure)가 모여 자질값 행렬 (feature-value matrix)의 병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건구조가 특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구조는 전체사건이 두 개의 하위사건(event-1/2: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리고 이들의 시간적 관계가 중첩 관계임을 보여준다. 사건구조와 함께 특질구조에서는 두 개의 하위사건이 어떤 의미특질을 갖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즉 특질구조의 형상역(Formal role)에서는 결과사건인 event-2가 'y(최소논항)가 반짝이는 과정'을 지시하는 하위사건이며, 작인역(Agentive role)에서는 원인사건인 event-1이 'x(원인논항)가 반짝이는 과정'을 지시하는 하위사건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질구조의 형상역과 작인역은 각 하위사건이 어떤 의미적 특질을 갖고 있으며, 각 하위사건에 관여하는 논항들이 어느 것들인지를 명시하고 있다.9)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사건의 중점(Head) 자질인데, 이는 전체사건이 어느 하위사건을 부가하여 표현하고 있는지를 명시하는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짝이다'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을 각각 부가시키면서 [최소-에] 구문과 [최소-가] 구문을 형성하므로, 이러한 직관을 반영하여 중점(Head)이 'event-1/event-2'라고 표시되어 있다. 즉 전체사건의 중점이 'event-1/event-2'라고 표시된 것은 event-1이 중점이 될 수도 있고, event-2가 중점이 될 수도 있다는 표시이다. 이러한 표시는 일종의 자질값 미명세(underspecification)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점값(Head value) 미명세 방식을 이용하여 최소교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Lee, Nam 및 Kang(1998)과 남승호(2000)은 Pustejovsky(1995)의 중점값 미명세 방식을 수정, 확대하여 다양한 교체 술어의 의미 구조를 생성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46)의 논항구조는 '반짝이다'의 논항이 두 개임을 보여 준다. Pustejovsky(1995)는 논항구조에 논항의 의미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논항명사의 의미부류와 함께 의미역도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격구조는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이 논문에서는 의미상의 논항구조가 표면의 통사구조에 어떻게 연결(linking) 되는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술하였다. (46)에서 격구조는 두 개의 격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격틀1 = x-가\_(y-에)]는 '반짝이다'가 [최소-에] 구문 (45a)로 실현될 때, 그

9)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다음 (i-ii)의 두 문장을 통사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 관계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복합사건이라기 보다는 단순사건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i) 밥거리에 내은사인이 반짝인다.
- (ii) 밥거리의 내은사인이 반짝인다.
- (iii) 서울의 밥거리의 내은사인이 반짝인다.
- (iv) 서울에는 밥거리의 내은사인이 아주 반짝인다.

본고는 이들 문장의 통사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ii)에서는 최소논항이 주어명사구에 흡수된 것처럼 분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iii-iv)과 같이 또 다른 최소논항을 취할 수도 있으므로 (i-ii)의 문장들을 반드시 단순사건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리고 [격틀2 = (x-로)\_y-가]는 [처소-가] 구문 (45b)로 실현될 때의 격틀을 각각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것은 (45e)에서 ‘반짝이다’가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앞서 3.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 있다’는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자동사와 결합하여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46)에서 보듯이 ‘반짝이다’는 두 하위사건으로 이루어졌으나,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사건구조를 보여 주지 않으며, 결과 사건도 상태(state)가 아니라 과정(process)으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46)의 사건구조에서 event-1은 event-2와 시간적으로 중첩하고 있어서 ‘-어 있다’와의 결합조건에 어긋난다.<sup>10)</sup> 따라서 (46)의 사건구조는 ‘반짝이다’가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반짝이다’와 유사한 의미구조를 갖는 술어로는 ‘빛나다, 타오르다’ 등의 빛내기 동사들과 함께 ‘울리다, 부글거리다, 웅웅거리다’ 등과 같은 소리내기 동사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46)의 ‘반짝이다’와 동일한 사건구조와 논항구조, 그리고 격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 4.2. ‘들끓다’ 부류

‘전체적 점유’의 동사인 ‘들끓다, 북적거리다’ 등도 ‘반짝이다’와 유사한 의미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이들은 ‘반짝이다’와 달리 [처소-에] 구문과 [처소-가] 구문에서 두 개의 논항이 모두 필수 논항으로 판별되므로, 이들의 어휘의미 구조 역시 ‘반짝이다’와 달라야 한다. 다음은 ‘들끓다’의 의미구조를 보여 준다.

##### (47) 들끓다:

사건구조 =	사건 =	event-1:과정 event-2:상태 시간관계:중첩관계 중점:event-1/event-2
논항구조 =	논항1 =	x:원인[복수 유정물, 때를짓는 동물들]
	논항2 =	y:처소[장소,공간]
격구조 =	격틀1 =	x-가_y-에
	격틀2 =	x-로_y-가
특질구조 =	형상역 =	x로인해_들끓는_상태(event-2,y,x)
	작인역 =	y에_모여_들끓는_과정(event-1,x,y)

10) 앞서 3.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 있다’는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부가하며, 이에 따라 ‘-어 있다’와 결합하는 술어는 반드시 예비과정(event-1: process)이 끝난 후에 결과상태(event-2: result process)를 갖는 복합 사건구조를 가져야 한다.

위의 의미구조는 ‘들끓다’가 과정과 결과상태가 합쳐서 복합 사건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두 사건은 ‘반짝이다’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중첩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질구조에서 두 하위사건 event-1과 event-2에 모두 두 논항 (x, y)가 관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건구조의 중점이 어떤 하위사건에 부여되든지 관계없이 두 논항이 모두 표면구조에 실현되어야 함을 말해 주며, 격틀1과 격틀2에서 각각 x(원인논항)와 y(최소논항)가 주어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48c)에서 보듯이 ‘들끓다’도 역시 ‘고 있다’와 결합할 때 [event-1:과정]과 [event-2: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 (48) a. 화장실에 파리떼가 들끓는다.
- b. 화장실이 파리떼로 들끓는다.
- c. 화장실이 파리떼로 들끓고 있다.
- d. ??화장실이 파리떼로 들끓어 있다.

또한 (48d)에서 ‘들끓다’는 ‘어 있다’와 결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47)의 사건구조에서 두 하위사건이 시간적으로 중첩되어 있어서, 결과상태의 event-2가 원인사건에 완전히 후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상태 지속’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3. ‘가득차다’ 부류

이제 ‘전체적 점유’의 술어 가운데 ‘가득차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 (49) a. 식당에 잔치 손님들이 금방 가득차다.
- b. 식당이 하루종일/계속 잔치 손님들로 가득차다.
- c. ?식당에 잔치 손님들이 가득차고 있다.
- d. ??식당이 잔치 손님들로 가득차고 있다.
- e. 식당이 잔치 손님들로 가득차 있다.

(49)의 예문들은 ‘가득차다’의 여러 가지 의미적 특질을 보여 준다. 먼저 (49a)와 (49b)를 비교해 보면 [최소-에] 구문에서는 ‘금방’과 같은 양태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며, [최소-가] 구문에서는 ‘하루종일’과 같은 지속시간 부사어(durative adverbial)의 수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득차다’가 ‘고 있다’와 결합할 때 [최소-에] 구문은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9d)와 같은 [최소-가] 구문은 ‘고 있다’와 결합할 때 (49c)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이러한 차이는 (49a,b)의 표현방식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49a)의 [최소-에] 구문이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채우는 과정’(즉 원인의 하위사건)을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이라면, (49b)의 [최소-가] 구문은 원인의 하위사건으로

야기된 결과상태 즉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차 있는 상태’를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49a)는 과정의 원인사건을 부각시키므로 ‘고 있다’와 결합할 때 원인사건의 과정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49b)는 결과상태를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고 있다’와 결합한 (49d)는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49d)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만은 아니어서 만일 (49d)가 식당이 가득차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듯하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49d)가 ‘일정한 시구간 동안에 식당이 가득차는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49e)는 ‘가득차다’가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가득차다’가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을 가리키며, 이 사건은 과정의 예비사건과 상태의 결과사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둘 사이에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가득차다’의 의미특성에 따라 그 어휘의미 구조를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50) 가득차다:

사건구조 =	사건 =	event-1:과정 event-2:상태 시간관계:선후관계(event-1<event-2) 중점:event-1/event-2
논항구조 =	논항1 =	x:원인[사물, 유정물] 논항2 = y:처소[장소,일정한공간]
격구조 =	격틀1 =	x-가_y-에 격틀2 = x-로_y-가
특질구조 =	형상역 =	x로인해_가득찬_상태(event-2,y,x) 작인역 = y에_가득차는_과정(event-1,x,y)

위의 사건구조에서 중점이 역시 미명세되어 있어서, event-1을 중점으로 해석할 때는 격틀1의 [처소-에] 구문으로 실현되고, event-2를 중점으로 해석할 때는 격틀2의 [처소-가] 구문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앞서 (47)의 ‘들끓다’와 같이 두 논항이 모두 필수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을 특질구조의 형상역과 작인역에서 표상해 주고 있다. 또한 사건구조의 두 하위사건(과정+상태)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를 이룸으로써 결과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와 결합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11)

11) 심사자 가운데 한 분은 다음 (ii)가 (i)보다 상대적으로 덜 자연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가득하다”의 사건구조에서 결과사건(event-2)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i) 입에 침이 가득했다.

(ii) 입이 침으로 가득했다.

#### 4.4. ‘환하다’ 부류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3.5에서 논의된 형용사 ‘환하다/밝다’의 의미구조를 생각해 보자.

- (51) a.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하다.
- b. 밤거리가 (가로등 불빛으로) 환하다.
- c.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해 있다.
- d. ?\*밤거리가 가로등 불빛으로 환해 있다.
- e. \*밤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고 있다.

‘환하다’는 (51a,b)의 두 구문에서 괄호 안에 있는 논항이 모두 수의적이다. 따라서, 두 구문 모두에서 ‘환하다’는 1항 술어로 분석된다. 또한 ‘-어 있다’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는 과정과 결과상태의 사건구조를 갖지 않는다. 또한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사건구조에 과정의 하위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어휘의미 구조에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52) 환하다:

사건구조 =	사건 =	event-1:상태 event-2:상태 시간관계:중첩관계 중점:event-1/event-2
논항구조 =	논항1 =	x:원인[사물,발광체] 논항2 = y:처소[장소,공간]
격구조 =	격틀1 =	x-로_y가 격틀2 = x-가_y에
특질구조 =	형상역 =	밝은_상태(event-2,y) 작인역 = 환하게_빛을_내는_상태(event-1,x)

필자가 위의 문장들을 언뜻 보았을 때 자연스러움에 차이가 있는 듯 하였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iii) 피살자의 시신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피살자의 입이 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i-ii)의 자연성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일까? 필자는 (iii)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iii)의 화자가 피살자의 입에 침이 가득 고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이 가득한 결과 상태만을 부각시켜 발화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설정되지 않은 맥락에서는 (ii)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 5. 마무리

이 논문은 소위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 한국어의 자동사와 형용사를 세 부류의 의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의미를 사건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 교체가 이루는 [처소-에] 구문과 [처소-가] 구문의 의미론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 술어를 (i) 소리내기 술어, (ii) 빛내기 술어, (iii) 전체적 점유의 술어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이 취하는 논항구조적 특성이 의미부류와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처소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특성에 관하여 (i) [처소-에] 구문과 달리 [처소-가] 구문은 전체적 효과를 수반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ii) [처소-가] 구문의 ‘NP-로’ 논항은 ‘원인’의 의미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iii) [처소-에]와 [처소-에서]의 교체는 종결성이라는 술어의 상적 의미에 따라 제약을 받으며, (iv) [처소-가] 구문에 나타나는 인물명사 주어는 대상화된 논항으로서 전체 문장은 그 인물명사에 관하여 개체차원(individual level)의 서술로 해석되고, (v) 기점논항을 취하며 처소교체를 보이는 술어들로서 ‘새다’와 ‘밝다/환하다’ 등이 있으며, 이들의 처소교체 현상도 인과적 의미와 사건구조로 기술할 수 있음은 ‘반짝이다’나 ‘들끓다’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특성을 고려하여, 처소논항 교체 술어의 의미를 사건구조/논항구조/격구조/특질구조로 이루어진 어휘의미 구조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표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사와 형용사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처소논항 교체를 허용하는 술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타동사들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의미특성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어휘의미 구조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김윤신. (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현주 · 남승호 · 이정민. (1999). Korean creation verbs and lexical-semantic structure.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인지과학회.
- 남승호. (2000). 한국어 이동동사의 논항구조와 사건구조.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소화출판사.
- 양정석. (1995). 국어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이론.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 한글학회.
- 연재훈. (1993). The degree of transitivity in Korean: A 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어학연구 2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우형식. (1990). 국어 타동구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서울: 한국문화사.
- 이정민. (2000). 상태변화 및 창조동사의 의미구조(논항 및 상). 이정민 외.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 서울: 소화출판사.
- 이정민 · 강범모 · 남승호. (1999). 한국어 술어 중심의 어휘부 의미구조 연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연구과제 보고서. 과학기술부.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서울: 한국문화사.
- 홍재성. (1987a).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국어학 연구총서 9. 서울: 탑출판사.
- 홍재성. (1987b). 교차 장소보어구문에 대하여. 홍재성. (1987a).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Boons, J.-P., A. Guillet, and C. Leclere (1976). *La Structure des phrases simples en français: constructions intransitives*. Geneva: Droz.
- Carter, R. J. (1976). Some linking regularities. In B. Levin and C. Tenny, eds. *On Linking: Papers by Richard Carter*. Lexicon Project Working Papers 25. MIT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
- Chierchia, G. (1989). A Semantics for unaccusatives and its syntactic consequences. Ms. Cornell University.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Dowty, D. (2000). 'The garden swarms with bees' and the fallacy of 'argument alternation.' In Y. Ravin & C. Leacock, eds., *Polysemy*. Oxford University Press.
- Filip, H. (1999). *Aspect, Eventuality Types and Nominal Reference*. A Garland Series of Outstanding dissertations in Linguistics. Garland Publishing Inc.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
- Guerssell et al (1985). A cross-linguistic study of transitivity alternations. *CLS* 21, Part 2. Chicago.
- Hale, K. and S. J.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s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Cambridge, MA: MIT Press.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MA:MIT Press.
- Krifka, M. (1992). Thematic relations as links between nominal reference and temporal constitution. In I. Sag and 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CA.

- Lee, C.-M, S.-H. Nam, and B.-M. Kang. (1998). Lexical semantic structure for predicates in Korean. In J. Bos and P. Buitelaar, eds., *Lexical Semantics in Context*. European Summer School in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 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 MIT Press.
-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 Pustejovsky, J. (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MIT Press.
- Salkoff, M. (1983).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Language* 59(2), 288-346.
- Schütze, C. T. (1995). PP attachment and argumenthood. In *Papers on Language Processing and Acquisi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6, 95-152.
- Tenny, C. and J. Pustejovsky (2000). A history of events in linguistic theory. In C. Tenny & J.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CA.
- van Hout, A. (1998). *Event Semantics of Verb Frame Alternations: A Case Study of Dutch and Its Acquisition*. Garland Publishing, Inc.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Cambridge, MA: Cambridge, MA: MIT Press.

남승호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전자우편 : nam@snu.ac.kr

접수일자 : 2002. 1. 25

수정본 접수 : 2002. 2. 2

게재결정 : 2002. 2. 22